



“그의 교회 세우기 - 한 번에 한 돌씩”

4 년차 보고서
2013 년 6 월 24 일

제 28 회 중앙총회
나사렛 성결교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서문

제 28 회 나사렛성결교 중앙총회의 본회의(plenary)를 시작하면서, 중앙 감독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사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우리를 불러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헌신된 나사렛의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 교회개혁자, 전도자, 교육자, 구제사역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318 개의 지방회를 대표하여 모인 1,234 명의 대의원들은 나사렛의 가장 큰 입법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단을 위해 이러한 중대한 섬김과 책임에 기꺼이 응하여 준 주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단의 초대 중앙감독인 피니스 브리지(Phineas Bresee) 박사의 비전이 실현되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브리스박사는 그의 사역 초기부터 “구원과 성결이 주님께(salvation and holiness unto the Lord¹)”라는 나사렛의 “성결의 물결(divine panorama)”이 전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나사렛인들은 이 비전의 넓은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받은 삶은 만민을 위한 온전한 구원에 대한 웨슬리안 성결의 가르침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사렛의 사명인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양육하기”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몫이 주어졌으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잘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우리의 목적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께 속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중앙총회의 본회가 시작되면서, 모든 행정과 관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목적을 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임 중앙감독 중의 한 명인 채프맨 박사(J. B. Champman)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회의기간 동안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관점을 올바르게 세워야 하겠습니다.

중앙총회 조직

2013 년 중앙총회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계사역센타의 직원들, 지구 사무실들, 또한 이번 주최자인 인디애나폴리스 지방회의 여러분들의 계획과 수고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중앙 총무 데이비드 윌슨(David P. Wilson)과 그의 직원들이 중앙총회와 컨벤션의 총책임을 맡았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지방회 감독 론 블레이크(Ron Blake) 목사와 개교회들의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환영과 접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 년

지난 2009 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란도에서 열린 중앙총회에 이후 많은 일들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 장에서 말씀하신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 달력들은 여러가지 행사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옳은 일들을 하느라 바빴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지난 4 년간의 보고입니다.

정회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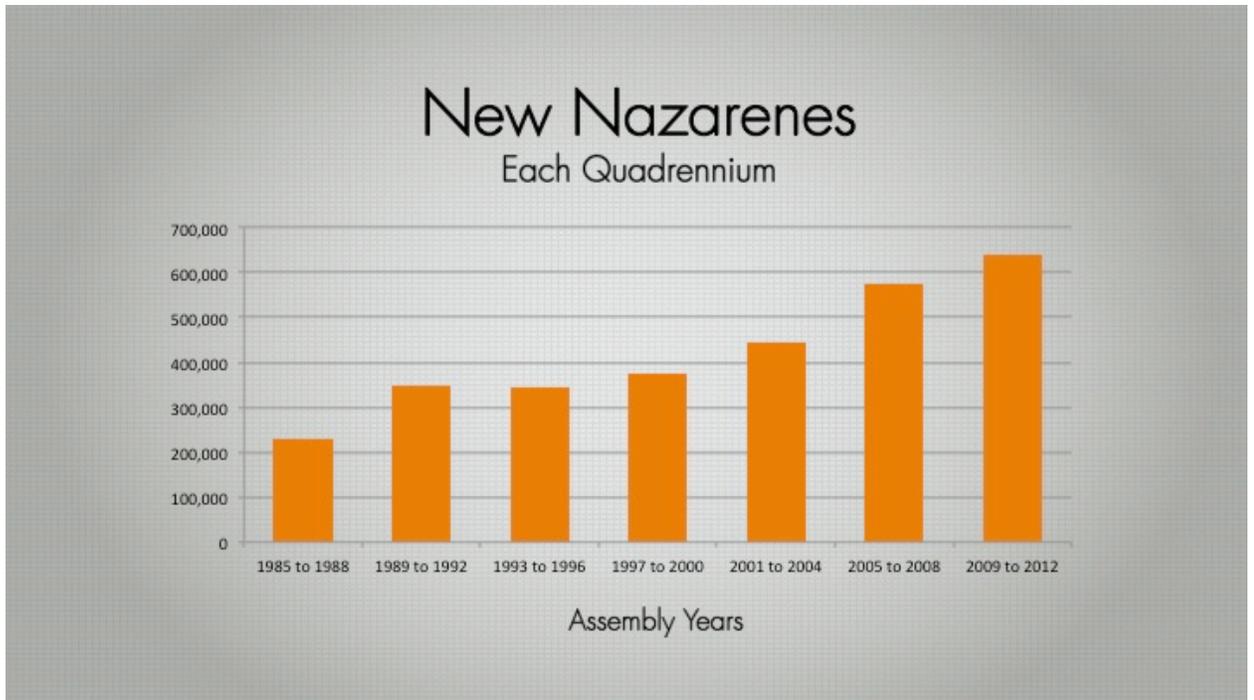
2010 년 나사렛성결교는 이제 정/준회원 수가 200 만을 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수확에 대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012 년 후반기에는 전세계의 159 개 지역에 28,130 개의 개교회와 215 만의 정회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1908 년 나사렛성결교가 처음 시작된 미국의 텍사스 시 파이럿 포인트(Pilot Point)의 합병으로 228 개의 개교회와 10,034 명의 예상 회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09~2013 년

- 나사렛성결교회들이 보고한 지난 4 년간의 새로운 교인의 수는 640,010 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한 신기록으로 지난 2005~2009 년에 비하여 11% 성장한 것입니다.



- 7,172 개의 새로운 교회가 보고된 반면 1,912 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 나사렛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교인 성장의 80%는 159 개 지역 중 16 개(10%)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성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각 곳에서 펼쳐져 나갈 때에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은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선교사

교단 초기부터 사역지에서 섬기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교회들의 선교 네트워크와 그들의 헌금으로 인해 712 명의 선교사들과 교단파송 자비량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교단파송 자비량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선교사들은 세계전도기금으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는 세계전도기금으로부터 매월 후원금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외의 교단파송 자비량 선교사들은 세계전도기금으로 인해 운영되는 네트워크와 조직 내에서 후원을 받습니다.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조직, 구조 모두는 전세계의 나사렛교회의 선교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전도기금의 감소로 인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소환시키는 일을 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든 감수하겠다는 것이 중앙감독위원회의 결정입니다.

2009~2013 년 간, 179 명의 선교사들이 은퇴, 계약 만료,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79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전도기금으로 후원받아 선교지로 파송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백명의 자비량 선교사들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각 선교지의 리더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선교 후원

세계 재정관리와 선교는 함께 동역합니다. 선교지와 개교회들의 여러 간증들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세계전도기금에 드리는 5.5%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목표이며 그 이상 드러진 헌금은 교단이 목표하는 것 이상을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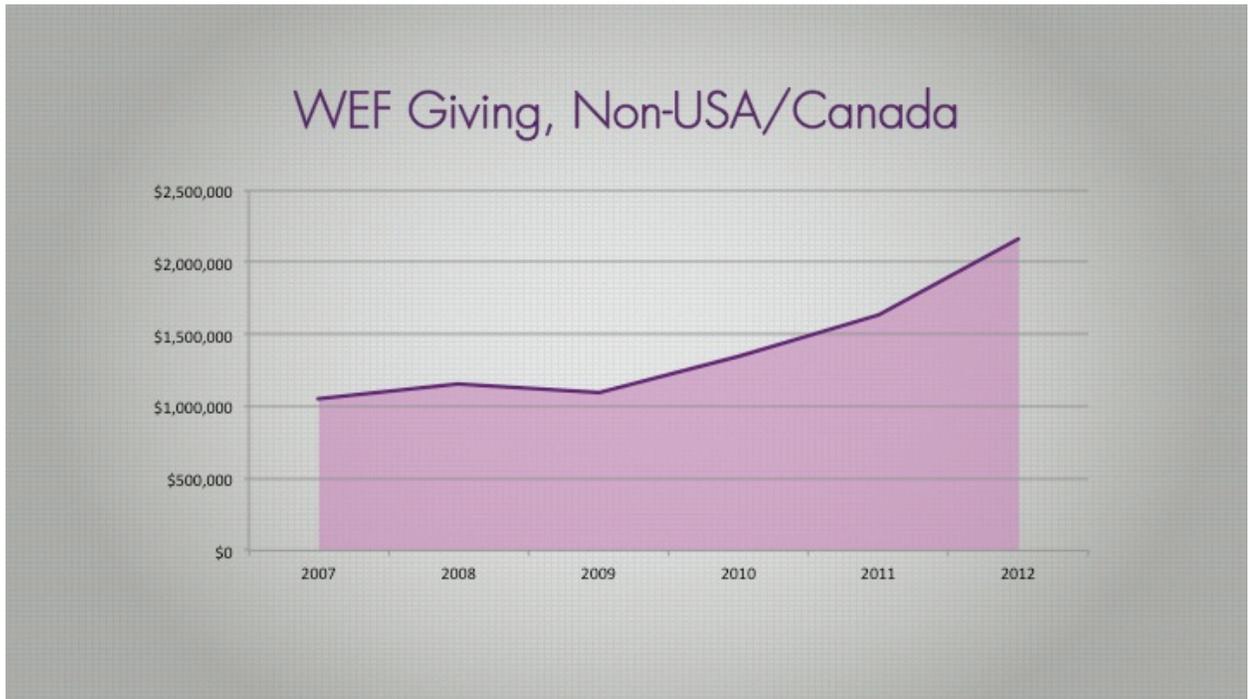
이 헌금은 때로는 우리만의 관심사를 넘는 대의에 우선권을 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사렛성결교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깊은 배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 중 하나는 미국 내의 나사렛 교육기관들이 지난 4 년간 미국교단 내 연금 및 혜택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 자신들의 할당금을 자진하여 감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2009~2013 년 재정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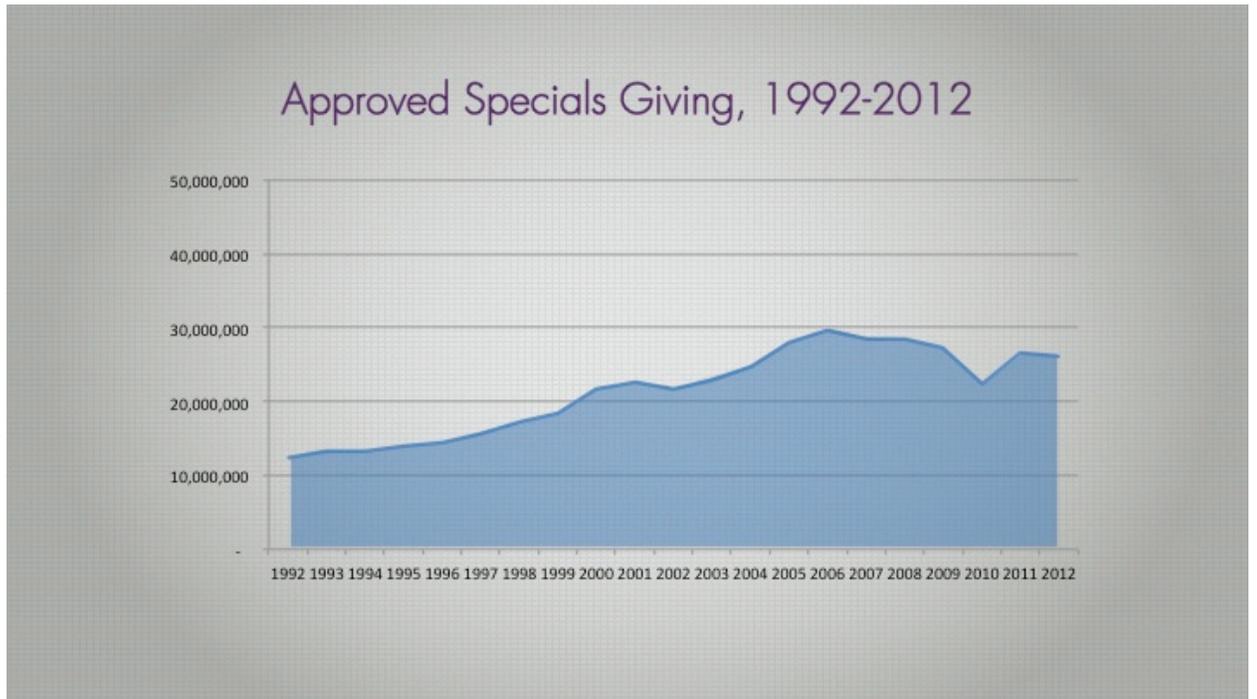
- 세계전도기금으로 1억 6천 880만 달러



- 세계전도기금 사용내역이 4년간 새롭게 도용되었습니다. 미국/캐나다 외 지역에 사용된 세계전도기금의 액수는 지난 2008년의 12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220만 달러로 86% 증가하였습니다.



- 특별승인헌금은 1 억 250 만 달러였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침체는 많은 나사렛교인들에게도 위기로 다가왔으나 감사하게 그들의 베푸는 손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앙감독들은 교단의 세계전도, 제자교육, 구제사역, 교육을 위해 그리스도적인 사랑으로 함께 나눈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계 선교

중앙위원회는 번 와드 3 세(Verne S Ward III) 박사를 세계선교국장으로 선출하여 지난 2012 년 은퇴한 루이 버슬(Louie Bustle) 박사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버슬 박사는 교단의 역사상 선교의 성장과 확장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에 최장 근속을 하였습니다. 와드 박사는 작년 4 월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구장으로 있다가 세계선교국장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 필리마오 참보(Filimao Chambo) 목사가 아프리카 지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마크 라우(Mark Louw) 목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멕시코, 중미 대륙, 카리비안 지역을 포함하는 중앙아메리카(Mesoamerica) 지구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나사렛 국제교육위원회(IBOE)

2011년 레브론 페어뱅크스(LeBron Fairbanks) 박사가 은퇴한 후 댄 캡(Dan Copp) 박사가 IBOE 교육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캡 박사는 세계 목회자 계발부 부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고등교육은 전세계적으로 그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교단의 공식 등록 현황으로는 53개의 단과대학, 종합대학, 신대원에서 5만 2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2013년 기간 내에 IBOE에 등록된 학교기관들 중 28명의 새로운 리더들이 임명되어 약 53%의 리더십 이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겪은 학교들 중에는 나사렛 신대원, 중미 나사렛대학, 마운트버논 나사렛대학, 한국 나사렛대학 등이 있습니다.

세계사역센터(GMC)

경제불황은 세계선교센터의 운영비용에도 영향을 미쳐 경제적 압력 및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적 감소, 고용 및 임금 동결로 이어지고 12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게 명퇴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확장 적용되었고, 일정 자격이 주어지는 직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조기은퇴가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전도기금의 예산 내에서(지구별이 아닌) 정식 고용된 세계사역센터 직원들은 불황 전의 156명에서 현재 118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년 동안 신실하게 섬겨온 직원들에게 교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렛 구제사역 법인체(NCMI)은 2010년부터 나사렛구제사역부(NCM)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세계사역센터 산하로 재배정되었습니다. 래리 볼링거(Larry Bollinger)가 나사렛구제사역 법인체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이 두 조직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지난 4년간 나사렛구제사역부는 3,230만 달러의 헌금을 모아 여러가지 구제 선교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사렛교인들이 국경을 넘어 구제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한 7가지 주요 구제사역 프로젝트입니다.

- 2010년 아이티(Haiti) 지진
- 2011년 미국 미조리 주 조플린(Joplin) 토네이도
- 2011년 아프리카(에디오피아, 지부티, 소말리아 3개국) 기근
- 2011년 필리핀 일리간(Iligan)시 & 까가얀 시(Cagayan de Oro) 태풍 센둥(Sendong)
- 2012년 일본 쓰나미 지진
- 2012년 미국 허리케인 샌디(Sandy)

- 2013 년 미국 오클라호마 무어(Moore)의 토네이도

중앙감독위원회는 계발촉진부(Office of Advancement and Development)을 신설하여 댄 스캐퍼(Dan Schafer)를 부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부서는 교단 내의 개교회 및 기타 조직들을 섬기면서 전세계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리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나사렛국제선교회(NMI)는 계속해서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2 년 나사렛재단(Church of the Nazarene Foundation)은 세계사역센터 산하로 구조 조정되었습니다. 켄 로니(Ken Roney)가 재단 회장으로 선출되어 은퇴한 멜빈 맥쿨로우(Melvin McCullough)의 자리를 뒤잇게 되었습니다.

나사렛재단은 개교회의 나사렛인들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4 년간 세계선교, 구제사역, 어린이사역, 청년사역, 문서사역, 교육기관 등을 위해 1,630 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 소유의 세계사역센터 채권이 완불되었을 때 우리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는 교단 소유의 차관기금(Loan Fund)을 웨슬리안 투자재단에 투자한 것에서 생긴 수익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초기 지급으로 인해 중앙위원회는 이자인 1,240 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 국제본부가 위치했던 미국 미조리 주 캔사스 시의 파세이오(Paseo) 부지는 코프만(Kauffman) 재단에 매각되었습니다. 코프만 재단은 파세오지역에 2013~2014 년 수업료 면제 학교를 새로 개교할 계획입니다.

교단이 역사적으로 교육에 헌신한 점을 볼 때, 중앙감독위원회는 에wing 마리온 코프만(Ewing Marion Kauffman)학교가 도시내의 초등 5 학년에서 고등 3 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중앙재무 마릴린 맥쿨(Marilyn McCool)은 세계사역센터 채권 완불과 국제본부 부지를 매각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사렛 미래연구소

2009 년 중앙총회에서 승인되어 데이비드 맥클링(David McClung)이 소장으로, 케네스 밀스(Kenneth L. Mills)가 총무로 임직하고 있는 나사렛 미래연구소(Nazarene Future Study Group)는 2012 년 8 월에 중앙감독위원회에 최종보고와 추천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2030년 교단의 미래를 향하여 좀 더 효과적인 선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시된 정보와 의견들을 신중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시된 결의안들은 중앙감독위원회가 2013년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3개의 결의안들은 모두 통과되었고, 검토와 실행을 위해 이번 중앙총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결의안 오리엔테이션과 대의원 위원회가 있었던 토요일에 중요사항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중앙감독위원회는 나사렛미래연구소가 이룬 성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계 웨슬리안 연맹(Global Wesleyan Alliance)

나사렛성결교를 포함한 18개 교단의 지도자들이 미국 오하이오 주 써클빌에(Circleville)에 위치한 크리스천 유니온 본부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계 웨슬리안 연맹(GWA)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협력관계는 웨슬리안-알미니안(Wesleyan-Arminian)성결 사역의 예언적 목소리를 극대화하며 전세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성경적인 성결을 전파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렛출판국

중앙위원회는 신중히 검토한 후 2012년 제랄드 스미스(Gerald Smith) 박사를 나사렛출판국 국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스미스 박사는 출판국을 1998년부터 2012년 11월에 은퇴할 때까지 섬겨온 하디 웨더스의 뒤를 이어 임무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들

교단은 2명의 중앙감독들과 이별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나사렛성결교의 명예 중앙감독이었던 윌리엄 그레이트하우스(William M. Greathouse) 박사가 91세의 나이로 2011년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레이트하우스 박사는 1976년부터 1989년까지 중앙감독으로 섬겼습니다. 1938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 테네시의 나사렛교회에서 목회하였으며 목회기간 동안 현재는 트레베카 나사렛대학이 된 나사렛대학에서 총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1968년에는 나사렛 신대원의 총장으로 선임되었으며 1976년 중앙감독으로 선출될 때까지 그곳에서 섬겼습니다.

또 다른 이별을 한 명예 중앙감독은 윌리엄 프린스(William J. Prince) 박사로 2012년 8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린스 박사는 목회자로, 지방감독으로, 대학 학장으로, 중앙감독으로 교단을 섬긴 후 2001년에 은퇴하였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수 년 동안 헌신하여 온 여러 주님의 사람들이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캔사스 시 위치타(Wichita) 출신의 전 중앙위원회 위원 레이 쿡(Ray Cook) 박사가 있으며, 트레베카 나사렛대학의 전 총장 밀라드 리드(Millard Reed), 아프리카 지구의 중앙위원회 위원이었던 존 고클베(John Ngombe), 청년과 커뮤니케이션을 맡았던 폴 스카일스(Paul Skiles), 세계선교 라디오와 출판을 위해 섬겼던 레이 헨드릭스(Ray Hendrix)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 16:15)

지난 4일간 우리는 중앙감독위원회의 동료들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간증과 뚜렷한 예들을 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결하게, 선교 중심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과 지역공동체와 나라들을 바꿀 수 있는 천국의 비전으로 사기가 충전되었습니다.

또한 중앙감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7 가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 의미있는 예배
- 신학적 일관성
- 열정적인 전도
- 국제적 제자교육
- 교회 발전
-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
- 목적이 분명한 구제사역

국제 주일학교/제자교육부(SDMI)와 국제선교회(NMI), 국제 나사렛청년연합회(NYI)는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더 많은 제자를 양성해야 할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중에 열린 대학 동창회와 기타의 모임들에 참여한 사람들도 수천명에 달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약 2천명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심어주는 성경퀴즈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린이들이 배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친구들과 친척들이 재회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으니 페이스북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사렛인들은 세상의 그 어느 네트워크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독특한 모임을 가능하게 만들까요?

우리의 신학입니까? 우리의 정책입니까? 우리의 선교조직입니까?

우리의 신학, 정책, 선교조직은 각각 우리가 나사렛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가치, 선교, 책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그리스도 닮은 선교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나사렛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이 화면에 보이면 낭독)

“우리는 삼위일체의 두번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되신 분임을 믿는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며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가지고 계시기에 하나님과 사람, 즉 하나님-사람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셨음을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참으로 죽은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그의 몸은 물론 완전한 사람으로의 모든 것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 그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다.”²

작곡가 알프레드 아클리(Alfred Ackley)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나는 다시 사신 구세주를 섬긴다. 그는 오늘날 이 세상에 계신다. 사람들이 뭐라해도 나는 그가 살아계심을 안다..... 그가 살아계심을 어떻게 아느냐고 내게 묻는가? 그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다!”³

나사렛성결교가 지난 105 년간 성장하여 28 회의 중앙총회를 열 수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고 교단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도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서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17 에 그 요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마태복음 16 장 16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 위에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 16:18)

아래의 내용이 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늘날의 교회와 미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시고, 지키시는 것 말고도, 교회의 기초이시고 모퉁잇돌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나사렛인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 (에베소서 2:19~22 참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는 장본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교회를 세우시는 전문가입니다.

마태복음 7:24~27 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종류의 건축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으려고 하는 자들은 언제 계절이 바뀔 것인지 또한 마른 땅이 지금은 굳어보이고 안정되어 보이나 계절이 바뀌면 홍수의 바다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함을 자신의 실질적인 경험으로 알고 계셨습니다.⁴

교회는 예수님과 같이 앞서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앞서 나가는 21 세기의 건축가들은 컴퓨터화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 똑똑한 건축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건축 환경을 관리하는 모든 서비스와 장비를 종합적으로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줄도 압니다.⁵

저는 2012년 3월에 대만의 수도 타이페이의 최고층 빌딩인 타이페이 101 빌딩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건물은 완공된 2004년 이후 대만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아이콘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부터 꼭대기까지 101층으로 지어진 타이페이 101은 시속 216킬로(134마일)의 태풍과 2,500년에 한번 일어날만한 강진에도 견딜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의 기초는 기반암으로부터 30미터(98피트)떨어진 지하 80미터(262피트)나 파고 들어가서 튼튼하였습니다.

타이페이 101은 21세기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최초의 고층빌딩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초당 16미터(52피트)의 속도로 상승하는 엘리베이터로도 신기록을 남겼습니다.

타이페이 101은 거대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페이 101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타이페이 101은 분명 오랜기간에 걸쳐 건축되었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저 100년 정도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관리하는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관리를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그의 교회를 계속 세우고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워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2 장 19 절은 이방인들은 더 이상 “외인”들이 아니며 하나님 가족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음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에베소서의 건물에 관한 비유는 우리의 교회는 “거대한 건물”의 일부분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 하나의 돌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관해 쓰면서 “영적인 건물”에 관해 몇 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스도는 모퉁이돌이시며 모든 것을 연결하신다.
-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는 새로운 돌 하나 하나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다.
- 건물은 여러가지 다른 문화, 배경, 세대들을 의미하기고 하며 그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 함께 세워졌다는 것은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누구에게 속합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합니다.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건물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뿐 아니라 그의 주인되심과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 “내 잔”, “내 몸”, “내 형제들”, “내 어머니” 등을 말씀하셨을 때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두가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이상의 것

이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교회 건물은?” 물론, 교회 건물도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가 일정한 곳에 마련되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300년 가량이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주로 가정에서 만났습니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3세기 동안 교회가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성장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 몇 백년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만한 “큰 지도자”로 알려진 그렇다할 선교사들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니다. 그대신, 기독교 신앙은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는 수많은 소박하고 평범한 신도들에 의해 전파되어 왔습니니다.⁶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역을 위해 모이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

(마태 28:19)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9)

그리스도와 동역하기 위해서는 “온전 순종” 뒤에 온전 성결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분은 나사렛성결교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에 귀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 28:18~20)

선교의 기회 추구하기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통해 그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지난 100 년 이상 동안, 사람들은 나사렛인들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그의 사명에 순종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로, 목회자로, 전도자로, 교회 개척자로, 주일학교/제자사역을 통해 주일학교 교사로, 교육자로, 사업가로 말입니다.

모두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

그 시간들을 통해 교회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보다는 스스로 배가하는 일이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웨슬리의 전통을 있는 성결교단인 우리는 제자로 양육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으로인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26)

이러한 영적 변화와 새로운 삶은 예수님이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수확을 꿈꾸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육적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명령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 22:36~40)

교회가 위대한 사명의 실천을 더욱 잘 이해하고 향상하였다면, 더욱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

전도와 제자양육의 기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두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르기스(Nargis)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나르기스는 2011 년 10 월에 태어났습니다.



나르기스는 인도의 러크나우(Lucknow) 시에서 태어나 이제 20 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나르기스는 2011 년 10 월 31 일 수 천명의 다른 아기들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서는 나르기스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70 억번째 사람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⁷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 이 아기가 지구의 7 억번째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도 지구에 태어난 인구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그러한 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르기스라는 아기에게 시선을 집중한 것은 인구성장과 발전을 전문 연구인들에게도 놀라울 만큼 이 세상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음을 말합니다 .

나르기스는 문화적, 인구학적, 지리학적 등 여러가지 면에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나르기스라는 아기를 통해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16 억이라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16 억이라는 수는 지구의 인구수가 늘어나는 수만큼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렛성결교는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도행전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세계선교국 국장인 변 와드(Verne S Ward III) 박사는 교회가 그러한 권능을 받고나면 그리스도와 동역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새로운 “돌”들을 모으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 와드 박사 비디오 재생)

- **선교하는 교회는 그가 속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설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들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가정과, 지역공동체와, 창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조직적인 문제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섬깁니다.
-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를 실천합니다.**
선교는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축하합니다. 협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아직 교회가 서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미전도 종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아직 서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필요를 인식하며 그러한 곳에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요한계시록 21:5)

나사렛성결교는 세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중대한 변화를 겪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변화들을 있었으나, 이처럼 거대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맥케나(David McKenna) 박사는 “육(肉)을 입은 모든 리더들은 그 역할의 본질로 인해 언젠가는 리더의 자리를 떠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세대가 끝났으며 새로운 세대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그 답을 아시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 2:21)

지금은 우리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지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앞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걱정이 아닌 기대를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각 곳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해에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나사렛성결교의 제 2 세기 역사가 시작됨에 있어서, 멋진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가치관과 자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는 괄목할 만한 기회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서로 간에 동역하는 새로운 기회들

여러가지 상황에서 나사렛인들은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들은 새로운 지역 또는 기존 지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산 돌”들은 나사렛 전도, 제자양육, 설교, 교육, 구제사역, 교육사역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각 사역에 흐르는 공통된 맥은 성결과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6 개 지구에서, 미래에 초점을 둔 그러한 노력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지구의 “창세기(Genesis) 프로젝트”가 바로 그러한 예 중의 하나로 나사렛교회가 한번도 세워지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건강한 교회들을 세우고 발전시킬 사역팀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사렛성결교단은 전세계적으로 대도시 교회 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회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21 세기의 새로운 도시 현실에 부응하는 성결 운동을 일으키는 사역에 동참하고, 계획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접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교회가 산업혁명으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도시의 현실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전세계 나사렛의 성결주의를 통해, 도시의 기술혁명으로 생기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한다는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요한 14:12~13)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길에 주어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2.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 리더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제자양육을 받으며 사역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으며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무거운 책임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하 16:9)

교회의 영적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으로 자신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이들에게 신임을 얻으며, 성결과 겸손은 동행한다는 것을 몸소 아는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결 운동은 큰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사역자로 등용된 평신도들과 여성목회자들로 인해 번창하였습니다.”⁹

“나사렛성결교는 여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를 교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목사 및 안수집사로 시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요 지도자의 지위에 선출되고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왔음을 확인합니다.”¹⁰

여성은 목회자로서 시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수가 교단의 중앙위원회, 기타 위원회에서 섬길수 있도록 선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사렛교회는 어린이와 청년 개발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성경퀴즈를 풀 학생들을 누가 제자양육할 것입니까? 아마 이들이 교회를 제자양육할 자들이 될 것입니다.

국제 나사렛 청년 연합회(NYI)는 교단 내의 가장 큰 연합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열린 NYI 연합대회는 전세계의 11 곳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어린이와 청년들을 사역, 교회학,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선교와 말씀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동참시키고 격려하는 우리의 지속적인 열정은 이 세대를 이어갈 생명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성 사역자, 어린이와 청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기도와 격려로 또한 실질적인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를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인들은 여호수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승리들을 성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서 배운 중대한 교훈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죽었을 때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사사기 21:25).

3. 새로운 종류의 자원들과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하는 기존의 자원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변화된 삶들입니다. 오늘날의 나사렛교단을 세운 것은 바로 교인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역이 미래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아무리 늦은 나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응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나사렛의 사역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각국의 리더들, 선교사들, 자비량 선교사들, 창의적인 동역자들이 교회의 본래 재량보다 더 크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나사렛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전도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선교의 기회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전도기금 이외로 드러지며 사역의 재정적 후원의 바탕이 되는 십입조와 헌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제자가 실천해야 할 의무이며 청지기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 중의 10%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국제 교단에게는 여러가지 도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알고 인력을 잘 활용할 때 엄청난 잠재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기술의 다양성

교회는 테크놀로지 혁명 초기부터 그 기술에 의지해 왔습니다. 합당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최신 인쇄술들이 나사렛출판국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몇 년간 전세계에 *Showers of Blessing*(은혜의 단비)라는 라디오 방송을 혁신적으로

송신해왔습니다. 현재에도 다양한 나사렛 라디오 프로그램들이 여러나라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사용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가들은 제 28 회 중앙총회를 트윗(tweets)와 문자(texting)를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한 최초의 미디어 네트워크 중앙총회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Facebook)은 현재 나사렛 중앙감독위원회를 포함하여 매달 10 억 이상의 사용자들이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 80% 이상의 사용자들은 미국 및 캐나다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¹¹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기술화는 함께 발전하며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온라인 성경공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가 전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이 태블릿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될까요?

나사렛 구제사역부는 여러 후원을 통해 자치구역 내에서 활용 및 유지가 가능한 기술을 동원하여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아이티에 100 개 이상의 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교회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신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늘어나는 기술의 가능성들이 개교회 사역에서 얻는 건전한 교리와 개인적 경험을 대신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5. 웨슬리안 성결신학과 우리의 사명을 근접시키려는 새로운 노력

신학과 선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온전성결과 그리스도 닮은 제자양육은 함께 갑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가능하게 합니다. 성결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4 년간 새롭게 나사렛교인이 된 64 만명의 교인들은 아직 교단의 교리나 웨슬리안적인 성경의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왜 나사렛성결교이어야 하는가?” 교단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는 교단의 존재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30 년 까지 500 만명 또는 그 이상이 될 나사렛인들의 신앙목표를 표명하기 위하여 교회의 신조와 실천을 다수의 나사렛인들의 신앙을 기준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85%는 미국/캐나다 지구 이외에서 나올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님은 제자로 만들어져 가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영원히 썩지 않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나사렛인들은 성령님의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세계의 다른 여러 교단들도 성결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스트모더니즘에 기초를 둔 기타 종교들도 새로운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의 성결 메시지는 단순한 표어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종교단체의 투명성, 온전함, 진정성을 외치는 세상을 끌어들이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세상에 필요하며, 그들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필요가 요구되는 곳은 나사렛 목회자들이 성결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이 고인이 된 전 중앙감독 에드워드 라울로(Edward Lawlor) 박사는 생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성결의 메시지가 긴장이 팽배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꿈과 희망에서 실천되는 것을 볼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자축하는 동시에, 교회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제자리에 머물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히브리서 11:10).

보라,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무리 이야기

1979 년, 필리핀 정부는 메트로 마닐라의 빈민가에 살던 자들을 이주시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동네는 장군 마리아노 알바레즈(General Mariano Alvarez)라고 불리며 현재 17 만 명의 사람들의 새로운 동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스티븐 구알베르토(Stephen Gualberto)목사는 이 지역의 한 교회에 저를 초대하여 설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스티븐은 자신의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저에게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스티븐이 어린 시절 가족들이 이주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동네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동네의 기반시설 부족과 일거리 부족으로 인해 스티븐의 부모님은 주중에 마닐라에 일하러 나가게 되었고 스티븐도 부모님을 따라 마닐라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중에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옷 공장 지하에서 지내다가 주말이 되면 집을 돌보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메트로 마닐라 제일교회는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스티븐의 아버지가 사우디에 일하러 가신 뒤로는, 주님께서 이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동네에 땅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스티븐의 부모님은 그곳에 상가를 지어서 세를 놓아 가정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상가에 세가 나가서 빈 공간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스티븐은 어머니께 그곳에 청년센타를 운영하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당신이 세상을 뜨면 그때는 상가를 스티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의 약속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센타는 Power Life Ministries(능력의 삶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스티븐의 본교회인 마리아노 알바레즈(Mariano Alvarez) 나사렛교회를 포함한 여러 교회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타는 수 백명의 고등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깨어진 가정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신체적으로 언어로 성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폭력배도 있고 고아들도 있습니다.

이 청년센타는 전도, 제자양육, 주일예배, 청년캠프,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직업알선, 상담, 에이즈 예방교육 등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이 놀기도 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도 사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동네의 전 부시장은 이 센타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사역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15 살의 조슈아 가르시아(Joshua Garcia)라는 청년도 이 사역에 의해 크게 마음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조슈아가 9 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고 아버지는 그 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와 형제들은 할머니가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린 조슈아는 삐뚤어진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면서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풀었습니다.

조슈아가 11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 근처를 돌아다니며 깡패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를 무보수로 섬기고 있던 전도사님이 이 아이들을 전도하여 교회 활동에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조슈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센타에서 제자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한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숙제도 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조슈아의 꿈은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엔 필리핀 나사렛대학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슈아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사렛성결교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사명선언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가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청년센타의 사역으로 전도된 사람들이 “산 돌”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베전 2:5).

결론

이 시간을 몇 가지 질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 여러분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다른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 서겠습니까?
-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누가 19:10) 기회를 찾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돌이 될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참여하겠습니까?
- 여러가지 선교의 기회들이 나사렛성결교에 주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결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행 2:39)

이것이 그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방법 즉 한 번에 한 돌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존경과 기도로

중앙감독 위원회 드림

제리 포터(Jerry D. Porter)
제시 미덴도르프(Jesse C. Middendorf)
제이 케이 웨릭(J. K. Warrick)
유헤니오 드와르트(Eugénio R. Duarte)
데이비드 그레이브스(David W. Graves)
스탠 톨러(Stan A. Toler)

보고서 준비 및 낭독: 유헤니오 드와르트(Eugénio R. Duarte)

bgs@nazarene.org

마침 기도

스티븐 구알베르토 목사(Stephen Gualberto)

마침 찬양

“The Church’s One Foundation(교회의 한가지 기초)

- 1 Phineas F. Bresee, Carl Bangs, Beacon Hill Press
- 2 Article II, Articles of Faith, *Manual*, Church of the Nazarene
- 3 Copyright Word Music LLC
- 4 Daily Bible Study Series
- 5 Fusion Group
- 6 Christianity.com Dr. Ken Curtis
- 7 National Geographic Society
- 8 Joshua Project, Barrett and Johnson
- 9 "Called Unto Holiness" Vol. 1
- 10 Section 903.5, *Manual*, Church of the Nazarene
- 11 Facebook.com